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3. 08. 02. WED

큰빛은혜교회
FULL GOSPEL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다 같 이

1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3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데 없네

후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 도 자

성경 봉독 ---------- 잠언 12장 15-18절 ---------- 다 같 이

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6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7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8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 나눔 ---------- 성도의 지혜로운 대화법 ---------- 인 도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지혜로운 대화법'**입니다.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은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가에 따라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도의 구별된 대화법'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수용하라

우리는 먼저 수용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대화는 상대방의 권고를 잘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라고 합니다.**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상대방이 지적할 때 그 말이 옳든 싫든 듣기 힘들어합니다. 그 권고에 나의 약한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쓴 약이 잘 듣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적과 권고를 새겨듣고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권고할 때 그것을 나의 양약으로 잘 새겨듣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정 예배를 통해 수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둘째, 절제하라

두 번째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라고 합니다.** 마치 '분노조절장애'라 부르는, 자기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화하면서 자기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자주 대화 분위기를 깨뜨리며, 결국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기를 꺼려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사모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감정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탁월한 대화를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제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 수용과 절제가 '듣는 지혜'라면, 이번에는 '말하는 지혜'입니다. **18절입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무분별하게 표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은 양약과 같은 말로 착각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은 칼로 찌름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 해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자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론 하고 싶은 말 전체를 삼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말의 자제를 통해 지혜로운 대화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행동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구별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권고를 잘 수용하는 지혜, 감정을 절제하는 지혜,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말의 예법이 있습니다. 이번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마다 지혜로운 대화가 이뤄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 기도 ----------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성도로서 구별된 대화의 습관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눔 ---------- 다 같 이

1. 성도의 지혜로운 대화법 중 나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중 보 기 도 ---------- 다 같 이

1. 큰빛은혜교회의 예비하신 건축(건물, 교회, 땅)이 속히 이루도록
2. 믿음 좋은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오도록
3. 산위에교회, 이스라엘 회복, 컴패션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4. 홈리스, 버스킹, 어라이즈 워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도록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